

# 어린이날 광주·전남 최대 267.5mm ‘물폭탄’... 곳곳 피해

### 보성·광양 등에 폭우... 교통사고 등 73건 조치 속 인명피해 無

### 맥류 도복·조생종벼 침수... 일부지역 5월 일강수량 극값 경신

어린이날 연휴 동안 광주·전남에 최대 267.5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보성 267.5mm, 광양 265mm, 고흥(포두) 231mm, 순천 226mm, 보성

(별고) 205mm, 여수산단 188.5mm, 광주 무등산 85mm 등으로 집계됐다. 많은 비로 인해 광주·전남 곳곳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농경지 침수·도복(倒伏) 피해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지역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면적은 1천73ha로 조사됐다. 맥류 도복

이 1천372ha로 가장 컸고, 조생종벼 침수 330ha, 하우스 침수 19.1ha 등이었다. 주요 피해 발생 지역은 해남, 강진, 고흥, 광양 등이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해남군 황산-문내-산이면으로, 1천200ha 규모의 보리류가 쓰러져 1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강진군 강진-도암면에서도 145ha 규모의 보리-귀리가 비바람에 누워 1억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고흥군 산-포두면 등에서는 조생벼 330ha(가량 3억3천만원)이, 광양시 봉강-옥

룡면에서는 애호박·토마토 등 하우스 172ha(4천300만원)가 각각 물에 잠겼다. 여수에선 가로수 4주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전남소방본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각각 5건(배수조치 2건·안전조치 3건), 68건(인명구조 1건·배수조치 11건·안전조치 56건) 등 총 73건의 호우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날 자정을 갓 넘긴 오전 12시40분께 광양시 광양읍 주택에 뒷산에서 흘러내린 흩어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52분께에는 광주 북구 동림동 빗고을대로에서 첨단2지구 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인근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1시58분께에는 광양시 광양읍 덕리 한 교각 밑 골다리에서 이곳을 지나가려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남도는

전날 전면 통제했던 5호국로 8차중 2차로 12척을 제외한 나머지의 운영을 정상화했고, 소방당국과 함께 피해 시설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 중이다. 한편 하루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일부 지역은 5월 일강수량이 극값을 경신했다. 광양이 1986mm로 지난해 기록했던 극값 1502mm를 넘어섰고, 진도는 지난해 2019년 102mm를 넘긴 1128mm로 1위를 경신했다. 완도(1399mm)·순천(1541mm)·보성(1867mm)·강진(1292mm)도 극값을 새삼 깨 기록했다. /양시원·장은정 기자



‘이철규 열사’ 35주기 추모제.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고(故) 이철규 열사의 35주기 추모제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지)에서 열려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5·18 배경 게임’ 역사 왜곡 논란 일자 삭제

### ‘그날의 광주’... 북한군 침투설 담겨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가상 현실게임이 왜곡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자 삭제 조치됐다. 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최근 5·18을 배경으로 한 ‘그날의 광주’를 삭제 조치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으로,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로블록스의 한 사용자가 제작한 ‘그날의 광주’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치열

하게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이다. 하지만 시민군과 계엄군이 전투를 벌인 비극적 참상을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재현한다는 설정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게임 내 화폐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거나 땅굴을 따라 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5·18 왜곡 사례인 ‘북한군 침투설’도 게임에 그대로 적용됐다. 게임은 지난 3일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만5천여명이 넘었는데, 이 게임을 접한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현재 플랫폼의 조치로 삭제됐다. /주성혁 기자

### 여수 돌산파출소, 방화범 체포 주민 22명 대피... 인명 피해 無

여수 돌산파출소가 LPG가스 방화범에 의한 화재 상황에서 주민 22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10분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12신고를 접수했고, 여수 돌산읍 소재 수산업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수산업 가공 공장에서 4년여간 일하는 동안 사장으로 부터 무시 발언을 들은 A(50대)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LPG가스통 옆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 후 현행범 체포,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진성 기자

## ‘잇단 보증사고’ 한국건설 법정관리 신청

### 광주지법 제1-2파산부 배당... 판단 주목

현금 자산 부족 등 ‘유동성 위기’의 한국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6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최근 정승용 대표이사 명의로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신청 법인도 법원 허가 없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해당 신청은 광주지법 제1-2파산부로 배당됐는데,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 가치가 청산 때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한국건설로부터 회생계획안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99위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께 광주 4개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현금 자산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를 노출했다. 급기야 주택보증공사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한 4곳에 대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며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이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여파로 한국건설이 시공중이던 현장 대부분이 멈춘 가운데 일부는 시행사가 승계 절차를 거쳐 공사를 마무리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 4번째 기소된 투자사기범 ‘일사부재리’ 주장 기각

180억대 투자사기 범죄로 4번째 기소된 피고인인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횡수를 볼 때 검찰의 공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사기(특가법)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B(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투자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임 A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해 328명으로부터 총 1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같은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2명에게서 5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여러 혐의로 기소돼 총 12차례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3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또 기소했다”며 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리지면 또다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횡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분리 기소를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1인 3역’ 사기행각 30대 회사원 항소심도 ‘징역 3년’

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액 사장을 속이고 30여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형량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

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B씨를 속여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처음 만난 당일 A씨는 아파트 잔금 비용 1억원을 빌렸고, 이후 돈을 갚으려면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1인 3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안재영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NEW**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